

중학교 창의적체험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분석

Exploring the Creative Activities and Sports Club Curriculum in Middle Schools

오 은 주
경일대학교

Oh eun-joo
Kyung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실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스포츠클럽의 시간을 136시간으로 정해놓음으로써 학교에 부담을 주고 있고, 동아리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스포츠 활동에 치우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보다는 교육과정에 묶여 있어 자유로운 창의성이 발휘되거나 인성증진의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사회의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과 방향이 여러 차례 수정되고 개정되어왔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2009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강조한 내용으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기존의 교육과정과 다른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2013년은 2009년에 고시된 교육과정 총론을 바탕으로 모든 학교급에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는 시기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학교에 전면 도입된 학교스포츠클럽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태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방법은 학교 유형별로 혹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전국 모든 시·도에 있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2009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학교는 전체 3,221개 중학교중 3,005개 학교였다. 총 3,005개교 중 국·공립학교는 2,406개교였고,

사립학교는 599개교였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교 중 5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및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하여 면담을 통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도구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설문조사 틀을 엑셀로 작성하여 각 학교의 교육과정 담당자로 하여금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학교현황,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편성 시수, 스포츠클럽 운영시수와 운영방법, 그리고 2009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기입하도록 구성하였다.

3. 결과 분석

결과 분석은 수집된 자료 중 잘못 기입된 자료를 결측값으로 처리 하여 분석하였고 자료 분석에는 SPSS를 사용하였다. 영역별 수업편성시수, 운영시수, 운영방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학교유형과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현황 분석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시간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전체 평균 편성 시간은 373.41시간으로 나타났다. 운영 시간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동아리활동의 운영 시간이 173.51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율활동이 107.77

시간, 진로활동이 63.23시간, 그리고 봉사활동이 29.8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시간을 국·공립과 사립의 설립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사립학교에서 평균 8.84시간 높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영시간을 설립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창의적 체험활동 총 운영시간과 영역별 시수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편차가 심하였고, 시·도별 분석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01$).

2.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시수 및 방법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학교에서 3년 동안 평균 140.19시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시간을 학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국·공립 학교는 140.73시간 그리고 사립학교는 138시간 운영하고 있었다. 학교 유형별 운영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운영 시간을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1학년 40.79시간, 2학년 40.52시간, 3학년 58.58시간으로 3학년에 많은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시수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세종시(159.8시간)와 전라남도(152.18시간)가 가장 높았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최소 136시간 편성·운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135.38시간), 제주시(135.21시간), 대전광역시(133.56시간)의 3개 시도가 136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가 3학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세종시의 경우 2학년에서 운영하는 시수가 가장 높았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시수가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방법을 분석한 결과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학교가 많았으며,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분석결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순증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혼합하여 운영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음으로 많았다.

3. 학교스포츠클럽의 문제점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하여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원래 교육과정의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동아리 활동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클럽의 운영이 강조되어 스포츠 이외의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행사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학교스포츠클럽을 교과 외 활동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스포츠클럽

전문 인력이나 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따라 다음과 같은 제언이 제시되었다. 첫째, 학교스포츠클럽에 편성에 대한 정체성이 필요하다. 교과수업 시수를 감축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교과 수업이 침해되고 스포츠클럽 활동을 위한 수업시간을 증감하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므로 많은 학교에서 교과수업을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동아리 활동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필요하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지원과 지침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스포츠클럽을 위한 전문적인 강사가 없어 일반 교사들이 스포츠 활동에 투입되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면 교과 수업에 지장을 주는 정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교육청 단위로 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연구하여 교육과정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와 학교의 문제 그리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의도하였다. 활동 중심의 체험학습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지적하였듯이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현실적인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현명한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된다.